

2025 수원서베이

수원시 1인가구의 현주소 : 다인가구와 다른 삶, 세대마다 또 다른 얼굴

박민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채우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정형안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요 약

1인가구, 이제 수원시의 익숙한 가구 모습

- 수원시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6.2%로, 3가구 중 1가구가 1인가구
 - 장안·권선·팔달·영통 4개 구 모두에서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특정 동네의 문제가 아님. 즉 수원시 전반의 생활 구조가 바뀌고 있음

세대별로 다른 1인가구, 다인가구와도 다른 특성

- 같은 1인가구라도 청년·중년·장년·노년별로 삶의 조건과 고민이 서로 다르며, 다인가구와도 구별되는 특징을 가짐
 - 청년 1인가구는 높은 주거비, 중년 1인가구는 주거비와 부양비 부담, 장년 1인가구는 생계비 압박으로 인한 노후 준비 부족과 정신건강, 노년 1인가구는 일자리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이 세대별 불안 요소로 드러남
 - 1인가구는 다인가구 대비 경제활동 참여율은 높으나, 고용·주거·사회적 안전망은 취약하며, 다인가구는 1인가구 대비 가구원 부양 및 가사 노동 등으로 인한 시간 빈곤과 정서적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정책제언

세대별 1인가구를 위한 경제·주거·일자리·건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 필요

- [청년 1인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초기 자산 형성 지원
- [중년 1인가구] 다중 지출 부담 경감 및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재무설계 지원
- [장년 1인가구] 은퇴 전환기 대비 지원 및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 [노년 1인가구] 의료·돌봄 접근성 강화 및 통합복지(소득+일자리+정서지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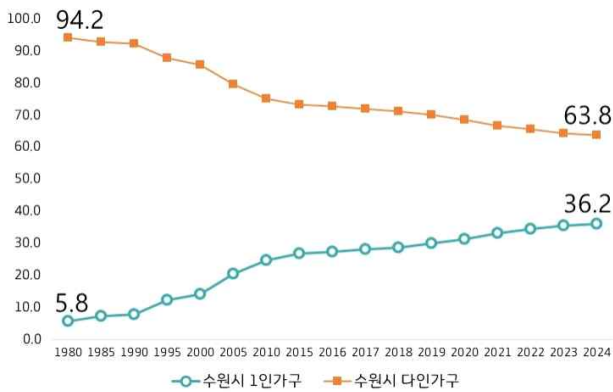
1. 통계로 본 수원시 1인가구 현황

□ 1인가구, 수원시의 핵심 가구 형태로 자리매김

- 수원시 1인가구 비율은 36.2%로, 경기도 평균보다 4.5%p 높고 유사자치단체 중 가장 높음
 - 수원시 1인가구 비율은 1980년대 이래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3년 대비 0.6%p 증가함
 - 유사자치단체 1인가구 비율은 수원(36.2%), 성남(35.1%), 화성(32.1%), 고양(30.1%), 용인(26.7%)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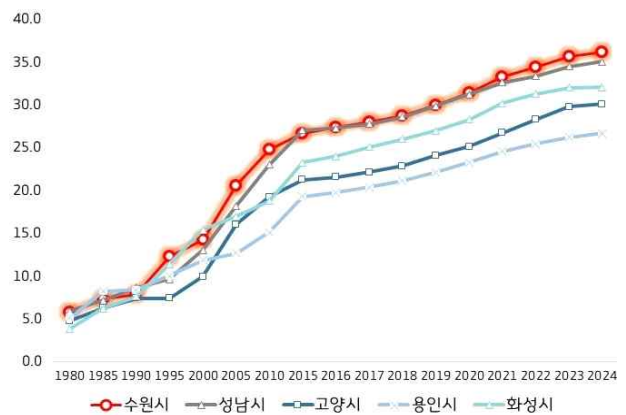
<수원시 1인가구와 다인가구 비율>

(단위 : %)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1인가구 비율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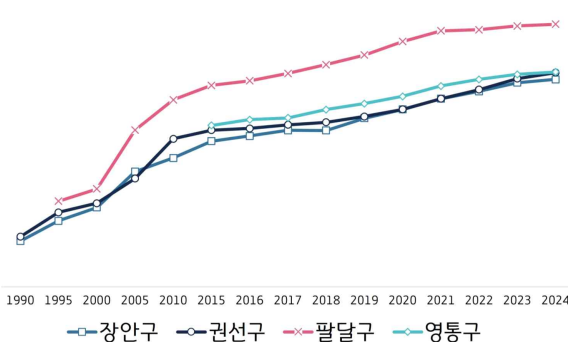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검색일: 2026년 3월 20일)

□ 수원시 4개 구 모두 1인가구 비율 증가...특정 지역 현상이 아닌 도시 전반의 구조적 변화

- 수원시 4개 구 모두 2023년 대비 2024년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권선구의 증가폭이 가장 큼(+1.0%p)
- 구별로는 팔달구 1인가구 비율이 42.9%로 가장 높고 영통구(35.1%), 권선구(35.0%), 장안구(33.9%) 순

<수원시 구별 1인가구 비율 변화>

(단위 : %)



<수원시 구별 1인가구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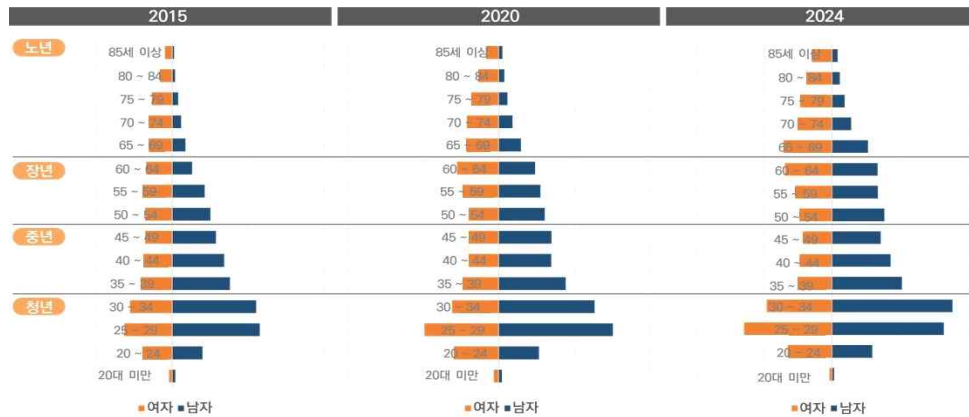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검색일: 2026년 3월 20일)

□ 남녀 모두 1인가구 비중 확대...청년 1인가구, 일시적 현상을 넘어 생활양식으로 정착

- 남녀 모두 1인가구 비율이 증가세이며, 2024년 기준 남성은 청년층, 여성은 노년층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음
 -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두드러져, 이제 청년 세대에서는 '1인 가구'가 일시적 상태가 아닌 새로운 생활 방식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

<수원시 성별·세대별 1인가구 비율>

(단위 : %)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검색일: 2026년 3월 20일)

2. 1인가구와 다인가구 특성 비교

□ [일자리] 1인가구는 고용의 질, 다인가구는 소득 안정성 취약

- 1인가구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으나, 고용 형태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구조
 - 1인가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9.8%로 다인가구(78.5%) 대비 높은 수준
 - 임시·일용직 비율은 17.6%로 다인가구(13.6%)보다 높아,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다인가구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소득 불안정 위험 존재
 - 다인가구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14.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소득 변동성이 높고 직원 고용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측면에서 소득 불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경제활동 여부 및 고용형태>

(단위 : 명, %)

구분	경제활동 여부			고용형태						
	N	그렇다	아니다	N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 종사자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전체	(3,023)	82.8	17.2	(2,504)	68.1	12.6	2.6	1.4	1.8	13.1
1인가구	(1,149)	89.8	10.2	(1,032)	67.4	14.6	3.0	1.7	2.1	11.2
다인가구	(1,874)	78.5	21.5	(1,471)	68.6	11.2	2.4	1.2	1.5	14.5

- 1) '경제활동 여부' 질문: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1시간) 이상 일한 일이 있었습니까?
- 2) '고용형태' 질문: 다음 중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3) 고용형태 내,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 [가계 소비 지출] 1인가구는 주거·문화 개인 중심, 다인가구는 교육·가족 지출 집중

-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식비(93.8%)와 주거비(67.7%)가 소비지출 1, 2위를 차지하여, 기본적인 필수 생계 유지비 비중이 공통으로 가장 큼

- 1인가구는 개인의 여가와 삶의 질(문화생활/오락비, 의류구입비 등)에 투자하는 성향이 두드러짐
- 다인가구는 가족 구성원 부양 및 양육 중심(공교육비, 사교육비 및 자녀 돌봄 비용 등)의 소비 구조를 보임

<가계 소비 지출항목(1+2+3순위)>

(단위 : %)

구분	식비	주거비	생필품 구입비	문화 생활/ 오락비	경조 사비	통신비	의류 구입비	차량 유지비	대중 교통비	공교육 비	사교육 비 및 자녀 돌봄 비용	의료비	부모/ 자녀 용돈	가사 서비스 이용비
전체	93.8	67.7	45.0	17.7	8.6	8.2	7.3	17.6	2.8	3.5	13.7	9.1	4.8	0.2
1인 가구	93.6	74.1	44.4	23.1	8.3	9.5	11.1	16.8	4.1	0.6	0.7	9.5	3.8	0.4
다인 가구	94.0	63.8	45.3	14.4	8.8	7.3	4.9	18.1	2.0	5.3	21.6	8.8	5.4	0.0

1) 질문: 귀댁의 생활비 중에서 지출이 가장 많은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2) (식비) 외식비 포함, (주거비) 월세, 이자, 공과금 포함, (문화생활/오락비) 유튜브, 넷플릭스 등 구독료 포함, (차량유지비) 할부, 리스 포함

3) 기타 제외

□ [주거] 1인가구는 다인가구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크고 주거 안정성이 낮음

- 1인가구는 전세 및 월세 등 임차 비율이 58.0%로 자가(78.9%)중심인 다인가구와 대조적인 주거 구조를 보임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반전세 포함)	보증금 없는 월세 및 사글세	무상 (사택, 관사 등)
전체	64.3	26.2	8.7	0.1	0.7
1인가구	40.4	38.6	19.1	0.3	1.6
다인가구	78.9	18.6	2.4	0.1	0.1

1) 질문: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점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가격 혹은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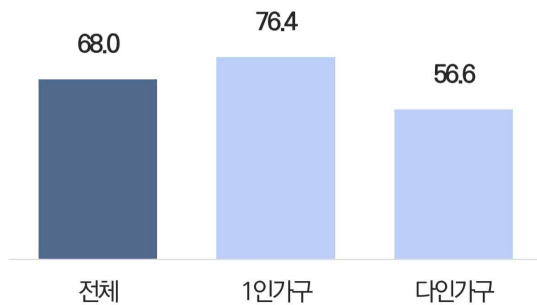
- 주거비 과부담가구 비율(소득의 25%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은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높게 나타남

-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이 높은 1인가구는 76.4%로 다인가구(56.6%)와의 격차가 큼¹⁾
-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또한 1인가구(11.8배)가 다인가구(7.2배)보다 높게 나타나, 1인가구의 자가 마련 장벽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

1) 주거비 과부담(RIR 25% 초과) 산정 시 가구원 수에 따른 균등화 소득 조정은 하지 않음. 다만 1인가구의 높은 임차 비율, 불안정 고용, 단독 소득원 등 구조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때, 1인가구의 주거비 과부담은 정책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해석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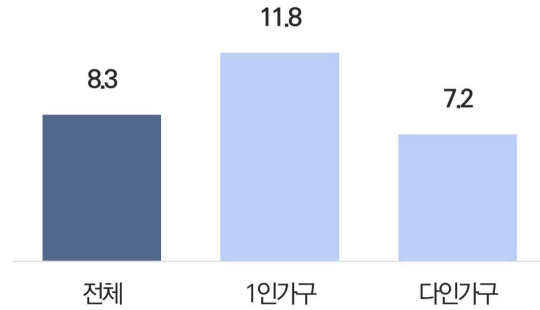
<수원시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단위 : %)



<가구별 소득대비 주택가격 배율>

(단위 : 배)



- 1) 가구별 RIR(Rent-to-Income Ratio):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이 25% 초과에 해당하는 비율
 2) 응답자 조사항목 활용 계산 값(RIR = 중위값(월 임차료)/중위값(월 가구소득)×100)
- 1) PIR(Price to Income Ratio): 연평균소득을 반영한 특정 지역 또는 국가 평균수준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
 2) 응답자 조사항목 활용 계산 값(PIR = 중위값(주택가격)/중위값(연 가구소득))

□ [건강] 1인가구는 '우울'과 '외로움' 등을 느끼며 행복 점수가 낮고 사회적 고립도 높음

- 1인가구는 외로움(41.5%)과 우울감(16.2%) 증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다인가구는 스트레스(64.4%) 비율이 높아 두 집단의 정서적 어려움의 양상이 다르게 드러난다는 점을 보여줌

<정신건강>

(단위 : %)

구분	초조함과 불안함	걱정을 멈추거나 통제할 수 없음	우울감 또는 절망감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스트레스	외로움
전체	15.4	13.3	15.3	23.5	62.8	31.7
1인가구	14.6	13.1	16.2	22.8	60.1	41.5
다인가구	15.9	13.4	14.8	23.9	64.4	25.7

- 1) 질문: 지난 2주 동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2) 정신건강 각 항목에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

- 행복 점수는 사회생활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1인가구가 낮게 나타나 1인가구의 전반적인 일상 만족도와 정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행복 점수>

(단위 : 점)

구분	행복지수 ²⁾	영역별 행복 수준 ³⁾				
		자신의 건강상태	자신의 재정상태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전체	73.2	86.5	52.7	81.2	75.1	70.3
1인가구	70.6	84.0	50.3	80.4	67.3	70.9
다인가구	74.8	88.0	54.2	81.8	79.9	69.9

- 1) 질문: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 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2) 행복지수: 5개 영역별 평균을 100점으로 환산한 값
 3) 영역별 행복 수준: 영역별 11점 척도 중 ⑦+⑧+⑨+⑩ 행복한 상태 응답 비율

- 1인가구는 위기 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8.8%)이 다인가구(5.2%)보다 높아, 위험 상황에서 의지할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함

- 즉, 1인가구가 정서적 취약성과 더불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연결망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함

<위기 시 도움을 요청할 사람 유무¹⁾>

(단위 : %)

구분	사회적 고립도 ²⁾	위기 시 도움받을 사람 유무 ³⁾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갑자기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줄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할 사람
전체	6.6	85.1	74.6	88.7
1인가구	8.8	74.6	70.0	85.8
다인가구	5.2	91.6	77.4	90.5

1) 질문: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있습니까?

2) 사회적 고립도: 위기 시 도움 받을 사람을 묻는 3가지 항목에 '모두' 없다고 응답한 비율

3) 위기 시 도움받을 사람 유무는 '있음' 응답 비율만 보고함

□ [의료서비스] 1인가구는 물리적 접근성, 다인가구는 시간적 제약 해소 필요

- 의료이용의 어려움에서 1인가구는 '이동 불편', '거리', '의료비 부담' 등 물리적·경제적 이유가 크게 작용하는 반면, 다인가구는 '시간 부족'이 주된 장애요인으로 나타남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이유>

(단위 : %)

구분	거리가 멀어서	이동이 불편해서	시간이 없어서	의료비가 부담이 되어서
전체	12.3	40.8	33.6	10.5
1인가구	13.5	46.1	27.3	13.2
다인가구	11.6	37.5	37.5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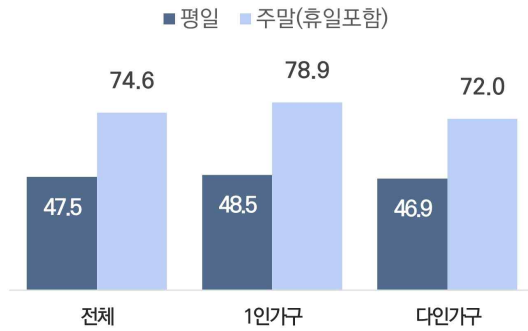
1) 질문: 귀하가 의료시설을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여가활동]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여가시간 더 길고 지출도 더 많음

- 여가시간 충분성은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평일, 주말 모두 높게 나타남. 이는 독립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생활 구조적 특징에서 기인함
- 월평균 여가활동 비용 역시 1인가구(32만원)가 다인가구(30만원)보다 높게 나타남
 - 여가비 지출액 절대 차이는 크지 않지만 가구원 수 대비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1인가구는 가구 의사결정의 주체가 1인임에 따라 본인 중심의 소비 구조를 보임

<여가시간 충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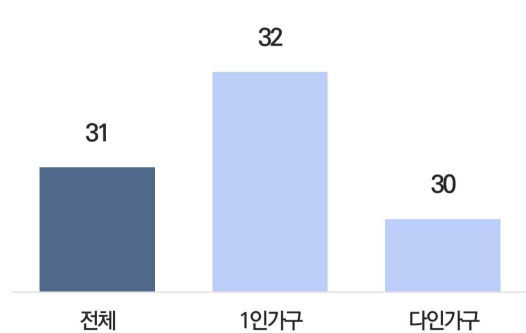
(단위 : %)



- 1) 질문: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각각의 복지서비스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습니까?
2)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

<여가활동 비용>

(단위 : 만원)



- 1) 질문: 귀하가 지난 1년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틀어 여가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얼마나 되십니까?

● 1인가구는 취미/오락, 게임 등 '개인 몰입형' 활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인가구는 문화행사·영화·스포츠 관람 등 '외부 관람형' 비중이 높음

- 여가활동 종류를 살펴보면, 1인가구는 취미·오락과 게임 참여율이 다인가구 보다 높아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개인 몰입형' 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함. 반면, 다인가구는 영화 관람, 스포츠 관람, 문화행사 관람 등 동반자와 함께하는 '외부 관람형' 활동 비중이 1인가구 보다 높게 나타남

<여가활동 종류(중복응답)>

(단위 : %)

구분	전시 관람	예술 공연 관람	대중 공연 관람	문화 행사 관람	영화 관람	스포츠 관람	취미/오락	게임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참여	관광	휴식	사회/기타 활동
전체	24.4	17.7	30.4	20.2	81.5	56.1	44.0	41.4	17.1	44.3	84.7	94.5	46.1
1인가구	23.4	18.5	30.2	18.6	79.7	52.9	46.1	44.9	17.2	43.9	83.4	93.6	46.5
다인가구	25.0	17.2	30.6	21.2	82.6	58.1	42.7	39.2	17.0	44.5	85.5	95.0	45.8

- 1) 질문: 귀하는 다음의 여가 활동을 지난 1년간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여가 활동을 하신 방식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3. 세대별 1인가구 특성

□ [일자리] 청년은 안정적 고용 그러나 낮은 자영업 매출, 중년은 안정적 고용과 높은 자영업 매출, 장년과 노년은 불안정 고용

● 세대별로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 안정성이 다르게 나타남

- 청년과 중년 1인가구는 상용직 근로자 비율이 높아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보임
- 장년 1인가구는 임시직 비중(22.9%)이 높고, 노년 1인가구는 임시·일용직과 함께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고용형태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짐

● 청년 1인가구는 임금근로 중심, 노년 1인가구는 불안정 고용·소규모 자영업 집중

- 청년층은 상용직 비율이 가장 높고 자영업자 비율은 2.8%에 불과함. 반면 노년층은 임시직(38.7%), 일용직(13.2%), 자영업자(31.8%) 비중이 높아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짐. 장년층은 자영업자 비율이 20.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으며, 중년층(11.0%)이 그 뒤를 이음
- 청년층의 자영업 매출액은 중년 대비 약 63% 수준에 불과해, 사업 경험 및 자본 기반의 부족이 낮은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줌. 노년층 역시 자영업자 비율은 높지만 매출 규모가 작아, 생계형 소규모 자영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함

<1인가구 고용형태 및 자영업 매출액>

(단위 : %, 만원)

구분	고용형태						자영업 매출액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 종사자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전체	67.4	14.6	3.0	1.7	2.1	11.2	1,944
청년	85.0	10.2	0.4	1.5	0.2	2.6	1,432
중년	82.7	3.3	1.4	1.5	2.5	8.5	2,278
장년	52.5	22.9	1.9	2.5	2.5	17.7	2,224
노년	14.7	38.7	13.2	1.6	5.0	26.8	1,554

- 1) '고용형태' 질문: 다음 중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2) '자영업 매출액' 질문: 지난달 매출액과 영업 이익은 얼마입니까?

□ [가계 소비 지출] 청년·중년1인가구는 주거·문화 중심, 장년·노년1인가구는 생활·의료비 중심

● 세대별 가계 소비 지출 항목 차이 존재

- 청년 1인가구는 대중 교통비와 문화생활 등 이동·여가활동 관련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년 1인가구는 부모·자녀 용돈과 문화생활 지출이 함께 나타나는 '끼인 세대' 특성이 두드러짐
- 장년 1인가구는 생필품, 통신비, 차량유지비와 같이 생활 밀착형 지출 비중이 높음
- 노년 1인가구는 생필품과 지출 비중이 높고, 특히 의료비 지출 비중이 전 세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남

<1인가구 가계 소비 지출항목(1+2+3순위)>

(단위 : %)

구분	식비	주거비	생필품 구입비	문화 생활	경조사 비용	통신비	의류 구입비	차량 유지비	대중 교통비	의료비	부모/ 자녀 용돈	가사 서비스 이용비
전체	93.6	74.1	44.4	23.1	8.3	9.5	11.1	16.8	4.1	9.5	3.8	0.4
청년	94.9	84.9	42.8	28.4	3.6	9.9	12.9	12.5	5.4	0.3	2.6	0.0
중년	92.2	70.4	36.6	31.2	5.7	8.3	13.7	27.7	2.6	3.0	6.5	0.3
장년	93.1	72.0	46.6	15.9	9.8	12.0	9.9	19.0	4.8	9.5	4.9	1.2
노년	94.1	66.0	55.9	10.0	17.4	8.8	5.6	5.3	3.8	31.8	0.9	0.3

- 1) 질문: 귀댁의 생활비 중에서 지출이 가장 많은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 2) '사교육비 및 자녀돌봄비', '공교육비', '기타' 지출 항목은 제외

□ [주거] 청년 1인가구의 주거 불안이 수원 정착의 최대 변수

● 청년 1인가구, 전·월세 집중으로 주거 불안

- 청년 1인가구의 자가 비율은 7.5%에 불과해 전체 평균의 5분의 1 수준임. 반면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를 합한 임차 비율이 90.2%에 달해, 청년층의 주거는 사실상 전·월세에 집중된 구조임
- 반면 장년층은 자가 비율이 59.0%로 임차를 역전하며, 노년층은 80.3%가 자가 거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안정적인 주거 구조임

<1인가구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반전세 포함)	보증금 없는 월세 및 사글세	무상 (사택, 관사 등)
전체	40.4	38.6	19.1	0.3	1.6
청년	7.5	48.6	41.6	0.0	2.3
중년	34.4	52.5	11.9	0.0	1.2
장년	59.0	27.2	11.2	1.5	1.1
노년	80.3	14.1	4.1	0.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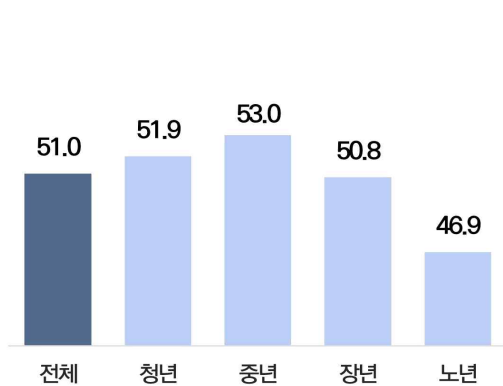
1) 질문: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점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가격 혹은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 주거비 부담은 중년층이 가장 높고,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은 정주 의향 약화로 직결됨

- 주거비 부담 정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의 부담 응답 비율은 51.9%로 전체 평균 과 유사한 수준이나, 노년층(46.9%)에 비해 약 5%p 높게 나타남
 - 특히 중년층(53.0%)의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고, 청년·장년(50.8%)이 그 뒤를 이음
- 주거 불안정성은 지역 정주 의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5년 후 수원시 거주 의향에서 청년층은 87.4%로 전 세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남. 반면 중년(94.9%), 장년(94.3%), 특히 노년층(97.4%)은 높은 거주 의향을 보이며, 자가 중심의 안정적 거주 기반이 현 거주지 유지 의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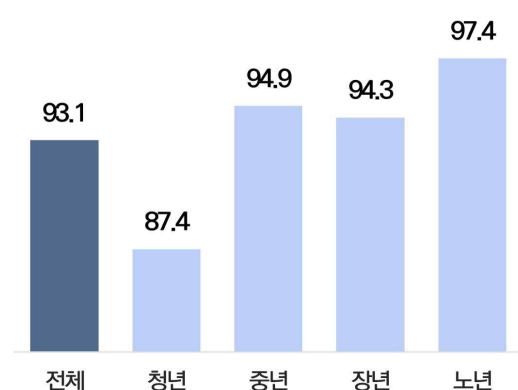
<1인가구 주거비 부담 정도>

(단위 : %)



<1인가구 5년 후 수원시 거주 의향>

(단위 : %)



- 1) 질문: 지난 1년간(2024년 1월 1일~12월 31일) 주거비가 부담스러웠습니까?
2) 주거비 부담에 '그렇다' 응답 비율의 합(④그렇다+⑤매우 그렇다)

- 1) 귀하는 향후 5년 후에도 수원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십니까?
2) 거주 의향 '있음' 비율

□ [노후준비] 노후생활자금 준비율은 높지만, 세대별 공백 원인은 상이

- 중년·장년·노년 1인가구는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90% 이상인 반면, 청년 1인가구는 약 10명 중 2명이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준비 수준이 미비
 - 다인가구와 비교 결과, 노년 1인가구의 노후 준비율이 다인가구 대비 낮게 나타남. 이는 노년 1인가구의 노후준비 취약성을 드러내며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시사함
- 적정 은퇴 연령과 희망 은퇴 연령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함께 높아지며, 장년·노년층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은퇴를 늦추고자 하는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남

<1인가구 노후생활자금 준비 여부>

(단위 : %)



<1인가구 적정 및 희망 은퇴 연령>

(단위 : %)



- 1) 질문: 다음은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여쭙보겠습니다. 귀하가 노후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항목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중복 응답)
- 2) '없음'은 위 질문에 '⑧준비하고 있지 않다' 응답 비율

- 1) 질문: 귀하가 생각하는 적정 은퇴 연령은 몇 세입니까?, 귀하가 희망하는 '본인의 은퇴 연령'은 몇 세입니까?

-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로 청년·중년층은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장년·노년층은 '생계비 부족으로 여유가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아, 자금 부족이 노후 준비 방해 요소로 확인됨

<1인가구 노후 준비를 못 한 이유>

(단위 : %)

구분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생계비 부족으로 여유가 없어서	자녀가 부양해 줄 것을 기대해서	기타
전체	64.8	26.8	3.8	4.6
청년	87.1	11.7	0.0	1.2
중년	68.9	31.1	0.0	0.0
장년	26.7	73.3	0.0	0.0
노년	15.5	47.9	18.1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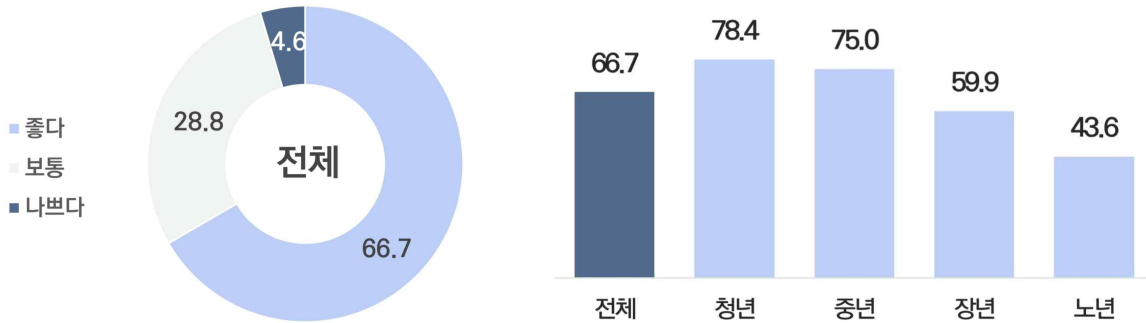
- 1) 질문: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하지 않거나 못한 주된 이유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건강] 노년 1인가구, 육체적·정신적 건강 모두 취약하며 사회적 고립도 높아

-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장년과 노년 1인가구에서 낮게 나타남
 -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낮아졌으며, 특히 노년층은 세대 중 가장 낮은 건강수준 인지율(43.6%)을 보임

<1인가구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단위 : %)



- 1) 질문: 평소 귀하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 세대별 그래프는 '좋다' 응답 비율의 합(①매우 좋다+②좋다)

● 생애주기 후반으로 갈수록 1인가구의 정서적 취약성이 드러남

- 청년·중년 1인가구는 행복감, 존재가치감, 건강, 삶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외로움, 우울감은 낮음
- 반면, 장년·노년 1인가구는 삶의 만족과 건강 인식이 낮고, 외로움과 걱정, 우울감 경험 비율이 높음

<1인가구 한 주간 삶의 질>

(단위 : %)

구분	긍정 감정				부정 감정		
	행복감	존재 가치감	건강	삶에 대한 만족	외로움	걱정	우울감
전체	82.2	82.4	83.6	72.2	21.1	20.7	15.8
청년	85.9	84.8	90.2	75.1	13.8	18.3	12.4
중년	85.0	86.5	87.9	77.9	19.6	19.6	15.6
장년	75.6	81.0	78.2	65.2	25.1	24.4	20.2
노년	78.7	74.3	72.5	65.9	30.3	22.6	17.1

- 1) 질문: 다음은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을 묻는 항목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각 항목에 대해 느끼셨던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2) '그렇다' 응답 비율의 합(⑤+⑥+⑦) 그렇다)

● 노년 1인가구는 사회적 고립도가 13.1%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아, 정서적·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두드러짐

<1인가구 위기 시 도움을 요청할 사람 유무¹⁾>

(단위 : %)

구분	사회적 고립도 ²⁾	위기 시 도움받을 사람 유무 ³⁾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갑자기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줄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할 사람
전체	8.8	74.6	70.0	85.8
청년	5.7	78.4	78.9	91.3
중년	7.0	76.8	72.8	87.6
장년	12.0	68.4	60.4	82.2
노년	13.1	71.4	61.2	78.5

- 1) 질문: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있습니까?
- 2) 사회적 고립도: 위기 시 도움 받을 사람을 묻는 3가지 항목에 '모두' 없다고 응답한 비율
- 3) 위기 시 도움 받을 사람 유무는 '있음' 응답 비율만 보고함

□ [의료서비스] 노년 1인가구, 의료비 부담과 이동 문제로 의료시설 접근성 가장 낮게 나타남

- 노년 1인가구는 의료시설 이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청년, 장년, 중년 순
-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이유는 청년층의 경우 이동 불편, 중년층은 시간 부족, 장년·노년층은 의료비 부담과 이동 문제
 -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 응답 비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히 높아, 고정 소득이 낮은 노년 1인가구에게 의료비가 실질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1인가구 의료시설 접근성 여부 및 접근이 어려운 이유>

(단위 : %)

구분	의료시설 접근성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이유			
	이용 어려움	이용 쉬움	거리가 멀어서	이동이 불편해서	시간이 없어서	의료비가 부담이 되어서
전체	5.5	94.5	13.5	46.1	27.3	13.2
청년	6.3	93.7	18.7	53.8	27.5	0.0
중년	2.7	97.3	0.0	49.9	42.5	7.6
장년	5.0	95.0	11.4	32.5	32.3	23.9
노년	8.9	91.1	15.1	43.1	17.8	24.0

- 1) '의료시설 접근성' 질문: 귀하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아플 때 의료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2)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이유' 질문: 귀하가 의료시설을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이용 어려움'은 이용이 '어렵다' 응답 비율의 합(①매우 어렵다+②다소 이용하기 어렵다)

4. 요약 및 정책제언

□ 1인가구, 경제활동 참여·자기계발에 적극적이거나, 고용·주거·사회적 안전망 측면에서 취약

- (강점) 1인가구 가구 구조상 본인이 유일한 소득원이므로 다인가구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가 높고, 소득을 바탕으로 자기계발·여가 중심의 가치 소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1인가구는 10명 중 9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다인가구(78.5%) 대비 경제활동 참여율 높음
 -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여가 시간이 많으며 문화·자기계발 활동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 지역 문화·여가 정책의 주요 수요층으로 부상하고 있음
- (취약) 1인가구는 다인가구 대비 가구 내 소득원이 1인으로 제한됨에 따라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며,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이 주거 빈곤과 사회적 고립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뚜렷함
 -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한 고용 비중이 높고, 소득에 비해 임차료 부담이 커 주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 요인 존재
 - 1인가구는 우울감·외로움·고립감 등 정신건강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위기 상황에서 기댈 가족·사회적 관계망은 약해, 실직·질병·소득 감소 등 위기에 더 취약한 구조를 지님

<1인가구와 다인가구 비교>

구분	1인가구	다인가구
일자리	취약 임시·일용직 비중 높음(17.6%)	취약 생계형 자영업 비중 높음(14.5%)
가계 소비 지출	강점 여가·문화·자기계발 투자 적극	취약 교육·양육·가족부양 지출 집중
주거	취약 임차(58.0%), PIR(11.8배), RIR 과부담(76.4%)	강점 자가(78.9%), PIR(7.2배)
건강	취약 우울(16.2%), 외로움(41.5%), 사회적 고립(8.8%) 취약 이동 불편·거리·의료비 부담	취약 스트레스 높음(64.4%) 취약 시간 없어서 의료기관 이용 어려움
여가	강점 평일·주말 모두 충분성 높음, 월 32만원 지출	취약 시간 빈곤, 월 30만원 지출

□ 세대별 1인가구, 각자의 강점과 과제를 가진 삶

- (청년 1인가구) 고용은 안정적이거나, 높은 주거비 지출 비중이 수원 정착을 위협
 - 상용직 근로 비중이 전 세대 중 가장 높아, 고용형태가 비교적 안정적
 - 주거비 탓에 수원 정착 의향 낮고, 저축 여력 부족으로 초기 자산 형성이 어려우며,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비중도 다른 세대보다 높음
- (중년 1인가구) 소득은 가장 안정적이거나, 지출 부담이 집중되는 끼인 세대
 - 중년 1인가구는 경제활동 참여율과 자영업 매출이 가장 높아 고용·소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
 - 주거비, 가족 부양비 등 다중 지출 부담 속에 노후생활자금 준비는 전 세대 중 가장 부족
- (장년 1인가구) 주거 기반은 안정적이거나, 생계비 압박으로 노후 준비가 어렵고 정신건강 취약성 두드러짐
 - 자가 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거 기반은 안정적인 편
 - 생계비 부족으로 노후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 세대 중 가장 높으며, 걱정·우울 등 부정 감정 경험 비율 높게 나타남
- (노년 1인가구) 지역 정주 기반은 안정적이거나, 고용 불안과 사회적 고립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취약 세대
 - 주거비 부담이 전 세대 중 가장 낮고, 수원 거주 의향이 높아 지역 정주 기반은 안정적
 - 임시·일용직 비중이 가장 높아 고용이 불안정하고, 건강수준 인지율은 가장 낮은 반면, 외로움·고립감은 타 세대 대비 가장 높아 신체·정서 전반의 복합 취약성이 두드러짐

<세대별 1인가구 비교>

구분	특성
청년 1인가구	강점 상용직 85.0%(고용의 안정성) 취약 가계 지출 중 주거비 비중 전 세대 최고(84.9%), 월세·전세 90% 이상, 5년 후 수원 거주 의향 가장 낮음(87.4%) 취약 노후 미준비 비율 약 20%
중년 1인가구	강점 경제활동 참여율 99.0%(소득·고용 가장 안정적), 자영업 매출 최고 취약 주거·문화 소비를 병행하며 부모와 자녀 부양까지 책임지는 '끼인 세대' 취약 노후생활자금 준비 비율이 전 세대 중 가장 낮음(2.4%)

<p>청년 1인가구</p>	<p>강점 자가 보유 비중(59.0%) 상대적으로 높은 편 취약 노후 준비를 못 한 이유로 생계비 부족을 꼽은 응답 비율(73.3%)이 전 세대 중 가장 높음 취약 걱정(24.4%), 우울(20.2%) 경험 비율 전 세대 중 최고</p>
<p>노년 1인가구</p>	<p>강점 주거비 부담(46.9%)이 가장 낮고, 향후 수원 거주 의향 가장 높게 나타남(97.4%) 취약 임시·일용직(51.9%) 비중 세대 중 가장 높아 고용 불안정 취약 건강수준 인지율 가장 낮고(43.6%), 외로움 경험(30.3%)·사회적 고립도(13.1%)는 가장 높으나, 의료시설 이용 어려움(8.9%)은 가장 높게 나타남</p>

□ 1인가구 세대별 정책 설계 핵심

● 세대별 강점과 취약점을 바탕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정책 설계 필요

- 청년: 주거정책 포트폴리오 다변화 + 자산 형성 지원 + 노후 준비 교육
- 중년: 다중 지출 부담 완화 + 노후생활자금 마련 연계 프로그램
- 장년: 안정적 노후 소득 기반 마련 + 정신건강 지원
- 노년: 스마트 안심서비스 및 관계망 강화 + 사회참여형 일자리와 밀착형 의료·돌봄의 통합 지원

(사례) 서울시,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 사업

- 청년
- 지원대상: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월세 60만원 이하 거주)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총 24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사례) 서울시, 1인가구 경제교육-중장년 특화과정

- 중년
- 지원대상: 서울 거주·생활권 1인가구(40세 이상 중장년 특화 과정 별도 운영)
 - 지원내용: 노후자금 확보, 부채·신용관리, 소비지출 분석, 목돈 만들기 등 재무관리 교육(총 57회) + 교육 후 재무·취업 1:1 컨설팅 연계(기본 2회, 취업컨설팅 최대 10회)



(사례) 서울시 도봉구, 고독 중장년 혼밥 탈출 '도봉마을 밥친구 봉우리.'

- 장년
- 지원대상: 서울 거주 또는 생활권자인 중장년 1인가구
 - 지원내용: 10명 내외 소규모 그룹 식사(점심·저녁) 및 경기관람·영화감상·보드게임·봉사활동 등 특색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고립감 해소 지원



(사례) 서울시 금천구, 나의 노후근육 키우기(1인가구 노후 준비 및 설계) 프로그램 신설

- 노년
- 지원 내용: 경제적 자립과 노후 자산을 대비를 목표로 시행된 정책으로, 연금활용법(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1인가구의 노후자산 관리 방법 및 필수 금융 상식 교육을 전액 무료 제공
 - 지원 대상: 서울시 생활권 1인가구(60대 이상의 노년층 및 금천구 생활권 1인가구를 우선적으로 선발)



출처: (청년)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중년) 서울특별시 복지분야 가족소식,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69595>, (장년) 패밀리서울, <https://familyseoul.or.kr/node/26443>, (노년) 패밀리서울, <https://familyseoul.or.kr/node/28822>(검색일: 2026년 3월 31일)

조사개요

- ✓ 조사 대상 : 수원시 거주 가구 내 만 19세 이상 성인 3,023명
- ✓ 조사 기간 : 2025년 8월 25일 ~ 2025년 11월 10일
- ✓ 조사 방법 : 가구 방문 면접조사
- ✓ 설문 내용 : ① 일과 지역경제 기반, ② 주거환경과 정주여건, ③ 일상생활에서의 쉼과 삶의 만족감 등

※ 본 간행물은 SRI-2025-전략-21 「2025 수원서베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SRI 수원시정연구원

Brief

※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이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김성진 | 편집위원장 정재진 | 편집위원 강은하 김도훈 김타균 유현희 최석환 한연주